김 일 성

자주성을 견지하자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자주성을 견지하자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제1부위원장과
한 담화 1981년 9월 7일

나는 베네수엘라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인 당신을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서와 특히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에 참가하여 적극 활동한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 대하여 훌륭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하여주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또한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서와 특히 당신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당신이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의 대외정책과 귀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우리는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의 로선과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면에서 우리 당과 베네수엘

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의 립장은 완전히 일치하다고 봅니다. 당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정당한 정책입니다.

물론 우리는 맑스나 레닌과 같은 혁명선배들로부터 혁명투쟁의 리론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혁명리론과 방법을 영원히 교조적으로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대의 성격도 변하고 사회적환경도 변하며 혁명의 대상도 변합니다. 혁명의 대상이 변하는것만큼 혁명의 성격도 달라지고 혁명의 리론과 방법도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맑스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세계혁명이 승리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맑스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저절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력사는 맑스가 예견한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련속적으로 일어난것이 아니라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레닌의 공적은 뒤떨어진 자본주의나라인 로씨야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것입니다. 로씨야혁명은 레닌이 령도하였습니다. 레닌의 령도밑에 수행된 로씨야혁명은 세계혁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로씨야혁명의 승리는 세계피압박민족들과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을 벌리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은 혁명을 레닌이 한 방법대로 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레닌이 혁명투쟁을 벌린 식대로만 혁명을 할수는 없습니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습니다.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 뽀르뚜갈, 화란 같은 나라들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세계 여러 대륙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식민지예속밑에 있던 나라들이 거의다 해방되였습니다. 다만 남부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몇개 나라들만이 아직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지 못하였을따름입니다.

오늘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 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지켜나가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생겨날 때부터 자주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주권이 없는 나라는 참다운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나라들사이에 높고낮은 종속관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당들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당들사이에 아버지당과 아들당, 할아버지당과 손자당, 맏형당과 동생당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들사이에 자주성의 원칙을 지

킬것을 요구하는 당신들의 주장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우리 당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 나라들과 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것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 경제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에 예속된것으로

되며 참다운 독립을 이룩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종속되면 아무리 사회제도가 진보적이고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들어도 정치적독립을 잃어버린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목적은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려는데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지 못하여 또다시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면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의의가 없게 될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한 형태의 예속을 다른 형태의 예속으로 바꾸어놓은데 지나지 않기때문입니다.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주장할뿐아니라 사람들도 자주성을 가질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전에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도 그 노래를 즐겨부르고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가질 때 자유권을 꼭같이 가지고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리여도 자유는 못버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을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짐으로 하여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됩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으로 발현됩니다. 사람은 자주성이 있어야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창조성을 발휘하여야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주성이 없으면 창조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발휘하

지 못하면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타고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태여나자부터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시절을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워주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어디서 그처럼 커다란 힘이 나오는가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힘은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내여 일하는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입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며 사람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주체사상이 있고 전체 인민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여기에 우리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승리하였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도 오늘과 같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통일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원자탄과 최신식전투비행기들을 끌어다놓고 매일같이 폭격연습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조선사람을 다 죽일수는 없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 공미사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는 미제를 무서워하며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것을 깨닫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몹쓸놈들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 공미사상은 점차 없어져가고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날로 두터워져가고있습니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새 세계대전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은 조선에도 있고 동남아세아에도 있으며 구라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라파가 자주의 길로 나가고 아세아에서 일본이 자주의 길

로 나가면 세계대전을 미리막을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떤 구라파나라의 대표단을 만나 구라파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인 프랑스, 서부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며 온 구라파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대전을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일본의 한 정치활동가가 와있는데 나는 그를 만나서도 일본이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두가지 측면에서 벌려야 합니다.

그 하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미제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혁명하는 나라들이 다같이 달라붙어 미제의 팔과 다리를 여기서도 뜯어내고 저기서도 뜯어내는 식으로 각을 떠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는 모든 곳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다른편으로는 정치적측면에서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미제의 각을 뜬다는것은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될것이며 더는 지배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게 하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교활한 술책을 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때에도 이런 수법을 써서 공짜로 많은것을 얻어먹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로씨야가 싸울 때 미제는 그사이에 끼워 횡재를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손실을 본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미제는 부유해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역시 지난날과 같은 술책을 쓰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일부 큰 나라들을 걷어쥐고 다른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와 중근동에서도 이와 같은 책동을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종속된 나라들이 그들을 따

라가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간다면 미제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여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세계대전을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며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무서워하는것은 우리에게 원자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번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에 베네수엘라가 정부대표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것도 베네수엘라인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을 겁나하였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우리 두 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정확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합니다. 나는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이 견지하여나가는 자주로선

이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성과 일치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당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든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을 환영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민들의 리익에 맞기때문입니다.

자주의 기치를 들고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이 인민들을 자주정신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묶어세워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돌아가면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위원장과 총비서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들을 초청한다는것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 위원장과 총비서가 우리 나라에 오면 우리는 그들을 열렬히 환영할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훌륭한 전우로서, 동지로서 많은 문제들을 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과 만나 담화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이 비록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앞으로 서로 손잡고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것을 바랍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베네수엘라사회주의에로의 운동지도부와 귀 당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